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5월 뉴스레터 vol. 43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가격

캠페인 안내

채우고 비우고

장례 후기

알쓸신장

안부를 묻다

메멘토모리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주인을 널리 모집합니다

하나둘하나둘 조합원 배가 캠페인

‘언택트’ 시대, 방구석에서 만난 미래

복을 짓는 사람들

장례비용 얼마나 들까 - 상조회사 편

꽃으로 죽음을 위로하는 장례지도사, 김윤식 꽃궁 대표

굿바이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주인을 널리 모집합니다

## [특보] 한겨레두레 공모주 청약 개시!



김상현 기자

+구독



각자도생 시대의 든든한 협동 안전망, 실리도 챙기고 이웃도 돕는 한겨레두레, 공모주 청약 드디어 결정.

상조시장의 새 바람인 한두레의 공모주 청약,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인가, 오로지 조합원에 달려있어.

무료 증정하는 홈트 사은품에도 이목 쏠려. 불량 상조사들의 안마의자 사은품을 '결합 상품 사기'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초미의 관심.

네, 저희가 공모주 청약을 개시합니다.

公募株(공모주)가 아니라 한겨레두레 협동조합의 주인 조합원을 널리 모집하는 公募主(공모주) 청약 운동입니다. 한 글자만 다른데, 실망하셨나요? 경제학에서 자본은 기업에서 생산의 밑거름이 되는 생산수단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기업에겐 '돈'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 돈이 자본이지만 함께 모여서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해결하는 협동조합에서는 생산의 밑거름이 '사람'이니 '조합원'이 자본, 즉 사업 밑천입니다.

한겨레두레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조합원들이 상조회사 상술에 속지 않고 바가지 쓰지 않고 장례 치르기.

둘째 정당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경쟁하는 깨끗한 시장 만들기.

셋째 고인과의 추억을 마음에 새겨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추모에 중점을 두는 장례문화 만들기.

넷째 화환, 음식 쓰레기 등 줄이는 친환경 장례, 여성도 상주가 되는 성 평등 장례 확산하기.

다섯째 조문객 접대하느라 진 빠지는 장례 대신 작지만 추모의식이 풍부한 작은장례 치르기.

여섯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이런 일들을 잘 하려면 한두레에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우리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재정이 튼튼해져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가장 든든한 장사 밀천은 ‘돈’에 앞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회원 확대를 위해 눈에 불을 켜는 것은 상조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TV 광고 등 막대한 광고를 하며 회원 가입시킨 사람에게 모집수당도 지불합니다. 2019년 P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광고선전비로 123억원, 모집수당으로 26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회사는 그 해 당기 영업손실 263억원을 보았는데 왜 무리해서 회원을 확대하는 걸까요? P사의 2019년 말 회원 선수금 잔액은 9193억원인데 이 돈으로 각종 증권에 4473억원을, 토지 건물 등에 1972억원을, 캐피탈 대부 회사 등에 7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마디로 P사는 회원들 돈으로 각종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며 주주들이 나눠 먹는 금융회사인 겁니다. 상조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한두레는 장례문화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의 뜻을 모은다, 이게 둘 사이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조합원을 늘려주면 많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을 더 활발하게 전개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겠죠. 또한 십시일반 효과로 여러분이 부담하는 조합비를 낮추거나 적립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조합 반상근 활동가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낮은 급여로 ‘열일’하는 연합회 상근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도 개선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 여러분, 이 좋은 거 널리 알려주세요.  
마음은 굴뚝같은데 이런 거 안 해봐서 쑥스럽다고요?

한겨레두레가 제기발랄 ‘하나둘 하나둘 조합원 배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소개할 분에게 전달할 ‘하나둘 키트’도 만들었습니다. 키트 안에는 각종 홍보물과 제기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제기들 다 차 보셨죠? 이 키트를 장례 준비가 필요한 친구, 지인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동봉해드린 채비 뉴스레터 합본호와 리플렛을 활용해서 한두레의 가치와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입 안 한다고요? 그럴 땐 “제기랄!”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가입하셨다고요? 그럴 땐 “제기발랄!”을 크게 외쳐주세요.

제기로 몸 건강, 한두레 가입으로 마음 건강 전파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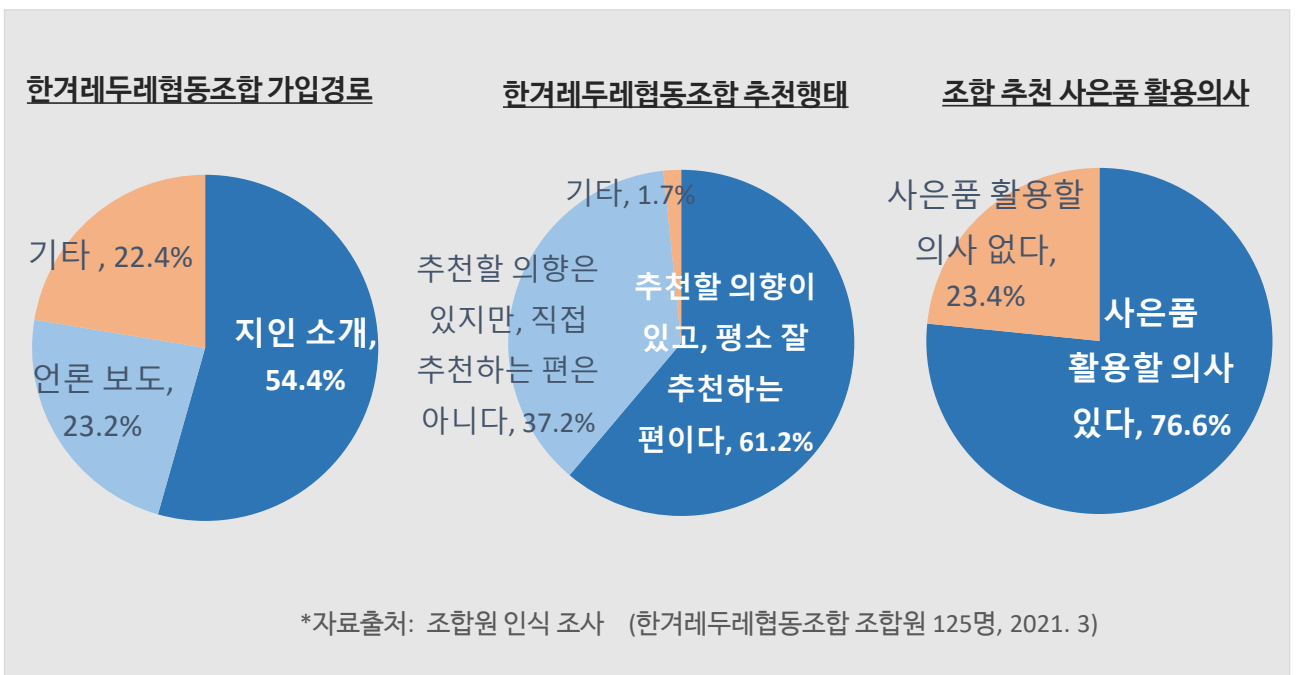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하나둘 하나둘 조합원 배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올해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합원 부흥운동 '하나둘하나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기존 상조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입니다. 전국 3500명 조합원, 9개 조합으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2천여 건의 장례 서비스를 단 한 번의 클레임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상조문화가 정착하려면 자생을 위한 위한 조합원 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조합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조합원들은 **과반수 이상이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원들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해 **대부분이 추천할 의향이 있으며, 평소에도 잘 추천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무려 61.2%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지인에게 조합을 소개할 사은품이 있으면 활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은 **사은품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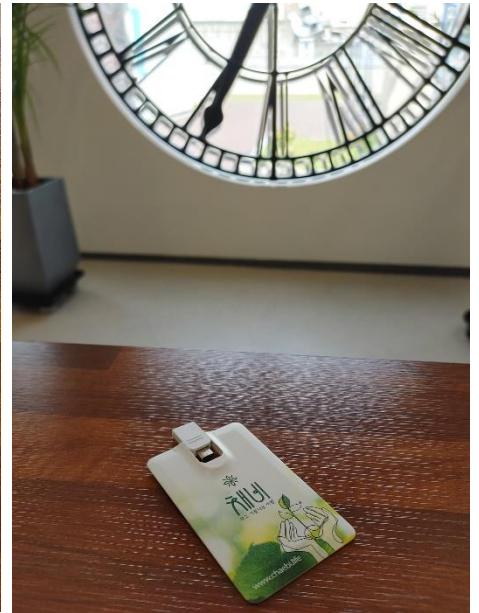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합원들이 평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지인에게 조합을 추천할 수 있는 사은품을 준비했습니다.

사은품에 대한 의견으로는 실용품, 건강용품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조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장례에 대한 의미있는 준비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둘 키트 구성품



채비 메모리카드(8G)

하나둘 키트는 지인에게 전해 줄 한겨레두레에 대한 소개와 장례에 대한 준비를 담았습니다.

#### <구성품>

인사말 편지, 채비 카다로그, 채비 뉴스레터(31~38호 합본), 채비노트(채우고 비우는 장례 준비 비망록), 가입신청서, 공간채비 음료이용권 2매, 제기 1개

전화 또는 아래 신청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수령하여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지인 주소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소개 받은 지인이 가입한 경우 추천한 조합원에게 **채비 메모리**를 감사의 의미로 증정합니다.

채비 메모리는 카드형으로 휴대가 편하고 8G의 넉넉한 용량으로 추모를 준비하기 위한 미디어와 문서를 저장하기에 적합합니다.

상업적 장례를 상호부조의 장례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한국 협동조합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채비키트 신청 CLICK**

## ‘언택트’ 시대, 방구석에서 만난 미래



오랜만에 ‘소셜집’을 읽었다. 그것도 단편소설 모음집을.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알았다. 내가 스마트폰과 넷플릭스에 중독돼 있었구나. 정보와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번쩍 정신을 차렸다.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 작은 섬에 올라선 느낌이었다. 중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자아’이다. 중심을 잃고 끌려갈 것인가, 자기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비밀 생중계>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내 방’에서 ‘나’와 대화하고,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난 작가가 써 내려간 10편의 단편을 모은 소설집이다.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주제의 무게와 구성은 결코 간단치 않다. 수학 전공자답게 작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상력 넘치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중학교 교사인 작가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면서 맞이한 세상을 열 개의 조각보로 펼쳐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만남을 자제하고, 규모를 제한한다. 대면은 ‘비대면’으로 180도 전환되었다. 그 세월이 어언 1년을 넘어서고,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다. 미래는 늘 불투명했지만 이토록 인간이 무기력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원래 무기력했는데 이번에 본래면목이 드러난 것인가.

사람들은 깨달았다. 우리가 쌓은 문명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미물(바이러스)에게 속수무책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살아지는구나. 이 사태가 행복이든 불행이든 이 모두 디지털(정보통신기술) 덕이다. 집 밖보다 집안이 익숙해지고, SNS가 더욱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되면서 작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대화와 만남이 없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사라져 석기시대의 유물처럼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다면? 체온을 측정하듯 내 말에 담긴 진심의 순도를 0~100퍼센트로 측정할 수 있다면? 어느 날 오래 방치된 방 안 구석 먼지 쌓인 책들이 말을 걸어온다면? 내 일상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노트북의 스피커를 통해 세상에 송출된다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공기청정기처럼 욕이나 비속어를 빨아들이는 기계가 생긴다면? 정보 과잉 시대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통조림처럼 저장했다가 이를 뇌에 입력할 수 있다면? 어떤가, 이런 세상은?

방구석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과 대화하게 된다. 평소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책장의 낡은 책을 펼쳐보고, 화초 이파리를 닦거나 잘하지 않던 청소도 하게 된다. 이 무료한 시간을 경과하다가 작가는 문득 ‘나’를 대면하게 된다. 그렇게 만난 나와 자주, 깊게, 오래 대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적인 공간인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갖고 놀거나 일한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작가는 문득 궁금해졌다. 사람들은 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상대와 대화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갈까. 무슨 상상과 사색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마음속을 치유하는 녹지대가 생겼나요? 아니면 외로움이 생겼나요? 이 책은 제가 만든 공간으로 독자분들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은 각 이야기에 함께 상상을 엮어가며 힘든 이 시기를 서로 의지하며 잘 건너길 바라봅니다.”

집이 안과 밖, 아날로그와 디지털, 연결과 고독의 시간을 오가며 우리는 다양한 세상과 소통한다. 그것이 때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 되기도 하고, 작고 선한 영향을 남기기도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주고받고 있을까. 작가는 언택트 시대, 소통의 본질을 묻는다.

자 이제, 접속하시겠습니까.\*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 복을 짓는 사람들



지난 목요일 저희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추모식을 했고, 토요일 발인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채비 장례지도사 세 분(박태호, 전승욱, 최대영)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분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분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분은 복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 분께서, 채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께 은혜를 기도합니다.

저도 더 복을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떠난 사람을 보내는 제례입니다만, 정작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도, 채비도 행복한 내일을 빕니다. ✨

김상범 | 조합원

고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공간채비에서 채비 작은장례로 진행하였습니다



## 장례비용 얼마나 들까 - 상조회사 편



지난 호의 ‘장례식장 편’에 이어, 이번에는 상조회사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조회사는 90년대 초반 즈음 일본의 호조회(互助會)를 모델로 하여 부산, 경남 지방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장례 물품과 기타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불입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상조회사 관련 규제가 없던 시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려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상조회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극심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었다.

2009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선불식할부거래업자(사전에 돈을 낸다고 해서 선불식,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라 할부거래업)라는 이름으로 상조회사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었고 500개가 넘는 상조회사들은 점점 정리가 되어 2021년 현재 75개의 상조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 수는 660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총 선수금 규모는 약 6조 2천억 원 규모이다. 대표적인 상조회사로는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등이 있다.

상조회사 패키지 상품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 보면 수의, 관, 유골함 등 고인에게 필요한 장례용품과, 상복, 장의차량, 생화제단 등 의전용품, 장례지도사와 접객 관리 도우미 등 인력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상조회사의 장점은 정해진 비용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가입 후 10년이 지나도 처음 가입 금액으로 물가 보상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업셀링(upselling)으로 고가의 수의나 유골함 등을 추가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의 상조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물가 보상이라는 장점보다는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 조합은 상조 소비자피해가 극심해진 2009년부터 문제를 인식하였고, 상조회사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① 패키지 상품이 아닌 맞춤형 진행, ② 직거래 공동구매 방식으로 폭리 차단, ③ 각종 뒤통돈과 리베이트 전액 환급, ④ 장례지원인력은 같은 조합원 등 혁신적인 상조 시스템으로 설립 후 10년 넘게 상조회사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설립 당시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연합회 등록 시 기재부의 권고에 의해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이후 기재부와 상조회사 주관부서인 공정위에 우리 조합의 정체성은 상조회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고 결국 2019년 조합의 가치를 인정받아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제외되었다.

근래에는 후불제 상조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후불제 상조란 미리 돈을 받지 않고 장례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장례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는 영세 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족들을 유인한 후 각종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뒤통돈과 리베이트로 수입을 보전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장례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문객 없이 가족 위주의 가족장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장도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금기시되던 부고 시 유족들의 계좌번호를 넣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조회사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고가의 상품과 끼워팔기,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뒤통돈과 리베이트 등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 조합의 ‘채비장례’ 같은 애도와 위로가 중심이 되는 장례문화를 함께 선도해 나갈 상조회사가 하루빨리 나타나주길 바라본다. ✽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꽃으로 죽음을 위로하는 장례지도사, 김윤식 꽃궁 대표



“4, 5월이 바쁜 시즌이잖아요? 주문에 맞추느라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새벽에 사 온 꽃이 부족해서 다시 꽃시장 가는 길입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김윤식 조합원(이하 김 부장)은 그런 사람이다. ‘세상에 할 줄 아는 것이 일밖에 없다’는 그는 늘 움직인다. 난 그가 멈춰 있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의 블로그 타이틀이 ‘전생애 노비’이다.

몇 가지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 조합 사무실이 종로구 필운동에 있었을 때이다. 김 부장은 그때 장례지도사(상포계 부장)로 상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의실로 들어서는 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뭐지? 투명했던 회의실 유리벽에 중간까지 반투명지가 붙어 있었다. 근사하게 대나무 문양까지 넣은 것이 전문가의 솜씨였다.

“하 이거 좋네. 사람 불렀어요?”

“아니요. 김(윤식) 부장님이 하셨어요.”

사무실을 출입하다 보면 반드시 회의실을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안과 밖 사람들의 시선이 얹혀 영 불편했다. 그걸 눈여겨본 김 부장이 틈날 때 시트지를 구해와 직접 시공(?)한 것이다.

어느 날 화장실 변기에 앉았는데 못 보던 작은 선반이 오른팔 닿는 곳에 설치돼 있었다. 휴대폰이나 휴지 같은 사소한 사물을 올려놓기 딱 좋았다. 이것도 김 부장의 작품이었다. 평소 선반이 없어 불편했던 것을 염두에 두었다가, 적당한 재료(나무토막)가 눈에 띄자 바로 시공한 것이다.

김 부장은 그 후 회사 생활이 갑갑하다며 퇴사해 몇 년째 프리랜서로 장례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베테랑 ‘플로리스트’라 불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꽃을 잘 알고 장식에 능한 사람이다. 그는 장례의 백미라 할 입관 때 반드시 생화로 고인의 마지막을 단장한다. 꽃 장식을 위해 그는 새벽 꽃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구해온다. 그 멋들어진 꽃단장을 보면 슬픔에 잠겼던 유족들조차 입가에 미소를 띤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나 곱다며 감탄을 금치 못한다. 생화 장식을 통해 그는 입관 의식을 가히 ‘아트’의 경지로 올려놓았다.

“1983년 청주시 흥수굴에서 선사시대(구석기) 아이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시신의 가슴 위의 물질을 분석한 결과 국화꽃으로 밝혀졌어요. 까마득하게 먼 옛날 아이를 잃은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꽃을 올리



지 않았을까요. 꽃은 망자를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지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꽃 한번 드린 적 없다고 오열하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생전에 자주 꽃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가 아내 김진희 씨와 함께 구파발역 사거리 상가 1층에 꽃집 ‘꽃궁’을 냈다. 꽃을 좋아하는 아내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땀고 남은 생은 꽃과 함께 하고 싶어 용기를 냈다. 원래 은평구 진관동 안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재개업을 하면서 대로변으로 옮겼다고 한다.

“꽃집은 크게 경기를 타지 않지 않아요. 남의 눈치 안 보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요. 어느 동네나 터줏대감처럼 꽃집이 하나쯤은 있지요. 먹고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왔는데… 좋아하는 일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새벽 꽃 시장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참 생각을 잘했구나 싶어져요.”

김 부장은 소년노동자 출신이다. 이른 나이에 상경해 철공장, 이화학 기기 회사.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 인터넷 사업, 식당 운영, 영구차 기사, 장례지도사…. 거친 세파에 굴하지 않고 역세게 이겨온 그는 그 끝이 꽃집이길 희망한다.

올해 봄날, 공간 채비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거침없이 잔디마당을 호미로 뜨고 꽃을 심고 있었다. 수선화, 리빙스톤데이지, 루피너스. … 순식간에 화려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졌다. 마법사처럼 환상적인 풍경을 펼친 이는 바로 김 부장이었다. 눈이 마주친 그가 씨익 웃었다. “작년 겨울에 봄이 오면 꽃을 심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가물가물한 약속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이다.

“꽃집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밝은 마음을 지니고 와서 그런지 표정에서 빛이 납니다. 예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꽃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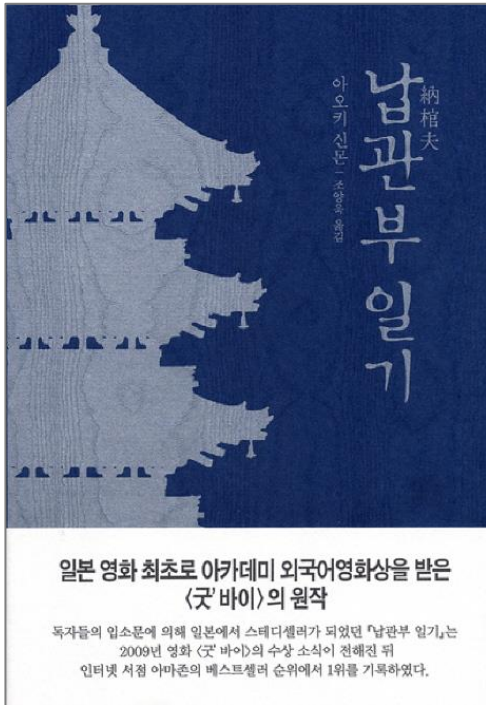
남다른 눈썹미와 야무진 손끝으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씨걱씨걱 해재끼는 김 부장. 나는 것처럼 민첩하고 집중력 높고 숨씨 좋은 이를 별로 본 적이 없다. 꽃으로 죽음을 위로하는 장례지도사이자 세상을 꽃대궐로 만들고 싶은 플로리스트. 수많은 꽃들 중 붓꽃과 코스모스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 꽃궁 대표전화 010-3956-3199



## 굿바이



### 납관부 일기

아오키 신문 | 문학세계사

저자 아오키 신문은 시인이다. 시와 소설을 쓰던 아오키 신문씨는 어느 날 납관부가 된다. 입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습과 입관이라는 특이한 작업을 맡고,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한, 마음의 갈등과 생사에 관한 탐구 등을 기록한다.

'납관부'는 죽은 사람을 깨끗하게 씻겨서 마지막 이별 화장을 해주고, 영원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를 위해 의상을 입혀 입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책은 그가 시신을 닦고 입관을 하며 기록한 납관부 일기다. 일본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굿'바이〉의 원작이며 그가 날마다 사체를 마주하면서 삶의 의미를 묻는, 일상의 경험이 담긴 기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회사에서 10년간 납관부로 일한 저자 아오키 신문은 "납관부는 '시체 처리사'가 아니라,

죽은 이가 안심하고 사후의 세계로 갈 수 있게 돕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에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죽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다.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죽는 것인지, 사후의 육체가 아름다운 것인지, 멋지게 죽는 것인지, 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죽는 방식인지 사후의 시신 상태인지 그 구별조차 애매한 것이다. 하물며 시신의 처리 방법까지 죽음의 이미지와 이어지면 점점 더 헷갈리게 된다.” - p63

그는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 작업을 계속해오던 중 그전과는 다른 시심을 깨치게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태연하게 죽는 것이라고 여긴 것은 잘못이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태연하게 사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체득하게 된다.

아오키 신문은 이 책을 통해 죽은 이를 응시함으로써 우리가 상실한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라고 한다. 책 읽기가 어렵다면 영화를 봐도 좋을 것 같다.✿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 채비학교 명사특강

### 도시에서 맞는 존엄한 죽음 : 연명치료에 관해

우리 삶 언저리에 늘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세계가 완전하게 끝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까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학교 명사특강은 한 분야에서 오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연구하고 전하는 분들의 강의를 듣는 자리입니다. '준비하여 맞이하는 죽음' '의식은 간소하게 추모는 깊이 있게' 를 모토로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과 마지막을 설계해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로 근무한 김형숙 교수님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죽음 준비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에서 맞는 우리의 죽음이 어떠했으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자리가 이 강의였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개요

- 대상: 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인
- 일정: 2021년 6월 24일(목) 저녁 7시-9시
- 교육 방법: 현장 + 유튜브
- 신청: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5ukZdTwXjQr6MyiL7> 전화: 02)722-9517
- 교육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 강사소개

##### 김 형 숙

전직 중환자실 간호사.

현재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역서로 『코드그린:의료영리화가 무너뜨린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 등이 있다.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 [강원조합] 속초 뱃머리 알쓸신잡 진행, 여행계 준비 중



강원한두레협동조합에서는 지난 5월12일 이경상 이사장님을 모시고 '속초 뱃머리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22일에는 여행에 관심있는 조합원과 함께 조합 여행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빨리 여행계가 만들어져 조합원들이 함께 만나 전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꼼꼼하며 친절하며 신속하고 감각 있는 디자인 전문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코발트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 조합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광사넷) 내에 회원사입니다. 광사넷은 현재 61개 회원사의 연대를 바탕으로 상호거래를 이루게 하며, 광진구를 기반으로 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입니다.

이번에 광사넷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용 장례상품을 출시하면서 디자인, 인쇄작업을 의뢰했는데 좋은 인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이 꼼꼼하며, 무엇보다 친절하고 신속했습니다.

문화 · 예술 · 디자인 ·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코발트(이사장 박꽃별)의 사업은 인쇄디자인은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비즈니스, 기관의 사업,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해 폭넓은 시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프로젝트와 조직이 확산하고자 하는 가치의 공감대를 넓히고,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시각물을 기획하고 생산합니다. 더불어, 커뮤니티플랫폼 비즈니스, 교육과 네트워킹 등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 과정을 설계하고 더 나은 혁신을 제안합니다.

- 주요 사업: UX·UI디자인, 인포그래픽스, 인쇄 홍보물 제작, 마을기업 브랜드 컨설팅
- 연락처: 02-457-1210
- 홈페이지: <https://cobaltcoop.modoo.at>
-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1길 23 현덕빌딩 3층



코발트 사회적협동조합



## #작은장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지서명하기



## 2021. 4월

김지현 조합원 모친상  
남기정 조합원 모친상  
김경숙 조합원 모친상  
신흥수 조합원 모친상  
하영만 조합원 지인상

정선원 조합원 빙부상  
김정순 조합원 시모상  
묵인희 조합원 모친상  
최주명 조합원 빙부상

이혜경 조합원 부친상  
강영아 조합원 시부상  
정성진 조합원 부친상  
박태호 조합원 지인상

## 2021. 3월

조영호 조합원 모친상  
이인희 조합원 부친상  
백옥진 조합원 부친상  
이학기 조합원 매제상  
서동재 조합원 빙모상  
한정택 조합원 부친상

장교순 조합원 조카상  
권태호 조합원 부친상  
황성대 조합원 처남상  
안정석 조합원 부친상  
양영철 조합원 부친상  
배인용 조합원 부친상

김경일 조합원 모친상  
김광호 조합원 빙부상  
최선아 조합원 모친상  
김혜란 조합원 시부상  
정운수 조합원 부친상  
배현지 조합원 배우자상

\*추모지원: 유창주님, 장영민님

## 2021. 2월

장성오 조합원 모친상  
김해랑 조합원 부친상  
이해원 조합원 부친상  
모성훈 조합원 빙모상  
김종신 조합원 모친상

정용오 조합원 모친상  
배영란 조합원 모친상  
김흥래 조합원 빙부상  
홍성표 조합원 부친상  
최종숙 조합원 부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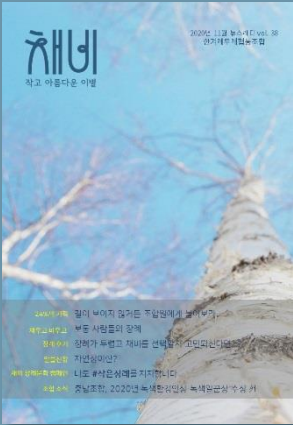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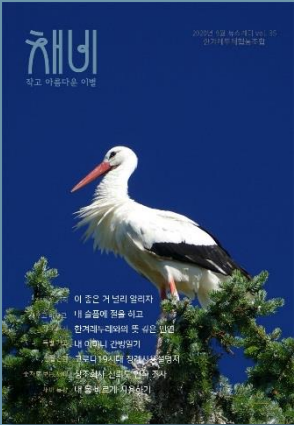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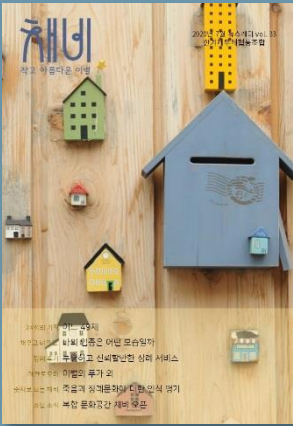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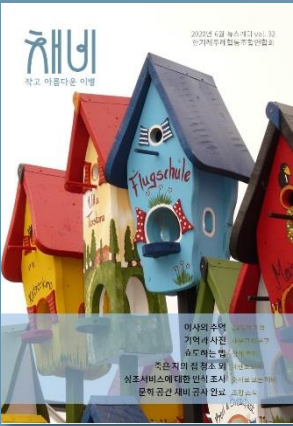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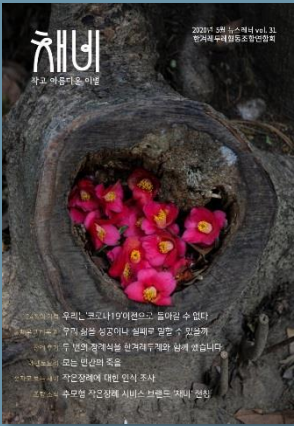
김영혜 조합원 시모상  
김명운 조합원 모친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강경희 조합원 모친상  
최빛나 조합원 자매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